

잎담배 건조의 최근 동향과 개선 방향

석 영 선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연초학과

잎담배건조는 경작의 마무리 과정 (The initial stages of manufacturing occur on the farm.)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용도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건조경과에 따라 정교한 관리(Tobacco was a hand made crop.)를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 농촌구조의 변모로 원료엽의 생산기반조성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담배시장의 상당부분을 외산담배에 빼앗기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깍연자의 기호에 부합되는 원료엽생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조과정에서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조의 용도에 따라 뜸드림 과정을 걸쳐 탈수건조하여 생엽이 지니고 있는 품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므로 품종 선택, 육묘, 본포 관리, 수확방법 등의 합리화로 양질의 생엽(Everything had to be in harmony with the weather.)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력 하여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잎담배건조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황색종의 경우 건조환경 조절이 어려운 재래식 건조실을 이용하던 시대는 숙련된 건조기술이 절대적이었으며 1978년 열풍순환 Bulk건조기의 국산화를 전환점으로 하여 건조조작의 자동화까지 발전하였고, 버얼리종의 경우는 1972년도 버얼리종 한일생태비교시험을 기점으로 건조 시설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기술의 보급을 시도하였으나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자연기상조건에 의존하는 제약성 때문에 건조의 안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황색종건조는 1812년 탄화에 의하여 황색으로 건조된 것이 시초이며 1856년 철

관을 이용하였고, 연료, 연소장치, 환기시설, 건조실 및 건조실내의 건조환경 조절 방법 등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06년 황색종 재배를 시작하면서 취급이 편리하고 온도조절이 용이한 연료로 변천하였고, 연료의 특성에 따라 연소장치가 여러 모양으로 개량되었다. 1978년 열풍순환벌크건조기를 국산화하여 1979년부터 산자에 보급하므로써 황색종건조기술사를 2분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979년 오일과동시 건조연료의 절감 및 화석류연료 대체방안으로 왕겨, 태양열, 연탄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장치가 개발되었고, 1987~1988년에 연초 건조의 전기간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제어장치 및 자동습도조절기를 개발하였으며, 1992년도부터 공동건조장을 보급하여 양질의 원료엽을 안정적으로 계획생산할 수 있도록 집단화된 생산지대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자동건조장치는 단순히 경과시간에 따라 온습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생엽소질과 건조경과를 관찰하여 보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엽소질, 엽중수분, 엽색, 엽중화학성분 등 건조경과의 정보에 의하여 조절되는 자동제어장치를 개발하여 건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공동건조장 경영의 합리화와 위탁건조, 수확기 도입과 연료전환에 따른 설비개선, 뜸드림의 촉진과 유효성분의 생성조장으로 꺾미의 향상, 건조기의 소음과 배기가스의 공해문제 등에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버어리종의 건조는 음건(Air Curing)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1960년대 초기에는 가건장을 세우고 건조를 실시하였고, 1965년에 대형 음건실(50평)을 국고보조로 보급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였다. 따라서 밭에서는 풍년이요 건조에서는 흉년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건조실패가 많았고 급건엽과 부패엽 생산의 연속이었다. 그 뒤로 목조건조실, 태양열건조실 따위의 보급을 꾀하였으나 영세성을 탈피치 못한 경작인으로서의 헛간, 처마밑, 다리밑, 묘지등을 이용한 형태로 건조하다가 1972년에 국고보조로서 새마을 다목적 건조실(파이프 비닐하우스)을 보급하여 버어리종 건조의 일대혁신을 가져 왔으나 품질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줄말림에서 대말림으로 건조방법의 전환을 추진하여 노력절감(My father would turn over in his grave if he know how we was pulling tobacco

plants now. James C. Klotter, 1998) 및 품질향상을 시도하여왔다. 버얼리종은 보충완화료로서의 특성에 대한 품질의 재인식이 필요하며, 차광방법과 인위적 습도 제어에 의한 이상건조엽 방지, 뜸드림 조장과 강제탈습법 등에 의한 건조기간 단축, 전엽대말림법 정립은 물론 재생원료엽의 자원과 가향건조 등 제조용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용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잎담배 건조 변천(1960- 현재)

년 도	주 요 내 용
1962	버얼리종 간이 건조실 산지보급
1963	무연탄 장려금 지급 폐지
1966	유류 버너, 교류식 철관 및 음건장 보급
1970	직화식 순환벌크 건조기(일본 木原) 도입
1972	개량 건조실 파고다식, 아리랑식 보급,
1974	제품탄 아궁이 보급, 벌크건조기 33대 도입
1979	국산 벌크건조기 400대 보급 대형벌크건조기 2대(충주 ; Ronoak, 안동 ; Powell) 도입
1983	거창식 건조실 보급
1989	황색종 자동 건조장치 보급
1990	버얼리종 건조실용 유색비닐 보급
1992	스파이크형 엽편기 및 공동건조장 보급
1994	수평형 대말림 보급

◇ 북한의 잎담배건조 용어

용 어	비 고	용 어	비 고
공기돌림장치	공기순환장치	색갈고정기	색택고정기
그늘말리기	음건	생잎 띄우는 단계	증효기
나들문	출입문	어깨관	새우철
누렇게 띄우기	황변기	엇바꿈온도	변온
덜익은 담배	미숙엽	열바람말림	열풍건조
되말림	재건조	잎달린 자리	착엽위치
마른잎	건조엽	잎줄거리말리기	중골건조
밤색으로 말리기	갈색건조	지내 익은 잎	과숙엽
불말리기	화력건조	축살형액아제	접촉성
비닐집	비닐하우스	해빛말리기	양건